

# 성도의 빛 9

1975



월간

# 성도의 벗

제11권 제 9 호  
1975년 9 월호

## 순서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간증 매리온 지 롬니
5. 신약성서의 세계
8. 회랍—로마가 성지에 미친 영향
11. 팔레스타인의 일상생활 에드워드 제이 브란트
13. 행복의 나무 에바 그레고리 드 피미엔타
16. 심심풀이
18. 반짝이는 벽 아이리스 신더가드
21. 사복음서의 일치점
28. 연대 순으로 본 그리스도의 생애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쿱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 일  
발행일 1975년 9월 1 일  
매월 1 일 발행  
통권 122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 1975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권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장기구독료는 1200원 입니다. 특집을 제외한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 입니다. 장기 구독자의 주소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 입니다. 구 주소와 신주소가 동시에 도착되지 않으면 주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항공 1년 구독료는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이 7불, 필리핀, 태국이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가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 아시아가 18불이며 선박은 어느 곳이나 3불이다. 구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성도의 벗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표지 설명

칼 하인리히 브록크 그림, 우물가에 선 사마리아 여인(앞표지)와 변형(뒷표지)은 덴마크 힐레로드 프레드릭스 보그 케슬의 예배당에서 발견되었다. 프레드릭스보그 국립역사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 편집자란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초를 둔 본 신약 특집은 1976—77년도 주일학교 복음 교리 과정을 이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약에 관한 기사가 본 성도의 벗에 실리게 됩니다.

1975년 9월호는 앞으로 발행되는 성도의 벗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각 호의 페이지수는 적어졌지만 내용면에서 편집 형식이 새로워 졌으므로 각 페이지에는 종전보다 많은 내용이 담기게 되고 더 많은 기사를 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왜 페이지 수가 적습니까”라고 질문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각 호마다 16페이지를 연차 총회 말씀에 할애하여왔습니다. 한 대회의 말씀이 6개월에 나뉘어 실렸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1976년)부터 우리는 매년 2회씩 연차 대회 말씀만을 엮은 특집호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대회의 말씀을 한 권에 모두 실어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대회 특집호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각 호에서 약간의 페이지를 저축해야 합니다. 1년을 통틀어 볼 때, 여러분은 종전과 같은 양의 성도의 벗을 받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대회가 열리는 지역에는 연차 대회 특집 대신 지역 대회 말씀 특집이 발행됩니다. 우리는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대관장단의 말씀과 기타 연차 대회 말씀의 요약물 실어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벗은 종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대관장단 메시지, 기사 및 이야기란, 8페이지에 해당하는 어린이란, 청소년란, 4페이지의 내외 소식란, 기타 때에 적절한 기사 등 많은 소식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간증

매리온 지 롬니  
대관장단 제2보좌

**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간증을 수없이 드렸지만 간증을 드릴 때마다 나는 한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받은 부름과 나의 소망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찬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나는 모든 인류에게 이 간증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붙여 준 이름입니다. 그는 장성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누가복음 2 : 46)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며 동시에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데에는 그가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서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의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박사는 이러한 의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의 저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가 육체와 영을 지니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라는 사실, 즉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을 지녀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경전에는 이와 같은 나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 주는 성구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경전에 나타난 이러한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한 사건의 중요성과 예수의 신성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최초의 사건은 천국 회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들에게 복음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속주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설명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 같으신 분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 : 27)

지금은 고인이 된 율슨 에프 휘트니 사도는 천국 회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음과 같이 힘있게 묘사했습니다.

성스러운 회의에 여러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

아직 창조되지 않은 세상의

운명이 저울대에 올려졌을 때,  
가장 좋은 길을 추구하던  
숭고하고 엄숙한 그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일어난 사람은 모든 왕과 제사 중에  
가장 고귀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니,  
그보다 고결한 자가  
또 있었겠는가.

권세와 덕을 겸비하고  
온유하면서 하나님 같은 형상을 가진  
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았네.  
그가 입을 여니,  
모두가 그를 주목하였고 더욱 조용한 침묵이 흘렀네.  
“아버지여!” 그의 음성은  
음약처럼 들렸다. “아버지여” 아직은 형체도  
없는 텅빈 지상이지만, 이곳을 채울  
당신의 자녀들에게 불사불멸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한 사람이 죽어야 하리니,  
“또한 미가엘(아담)이 타락하여  
인간을 지상에 오도록 하며,  
당신께서 한 명을  
택하여 구세주로 보내야 하리니,  
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소서!  
나는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노니,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회생토록 하시어  
당신께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슨 에프 휘트니, “세기의 서사시, 일라이어스” 솔트레이크시티, 1914년 17페이지)

내가 지상에 태어나시기 이전의 예수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또 다른 사건은 주님이 켈렘산에서 야렛의 동생에게 나타나셨던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성스러운 역사에 기록된 가장 극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질문에 야렛의 동생이 대답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배 안에 빛을 있게 하도록 내게 청함이 어쩡이나?” (이더 2:23), “...높은 산에 올라 작은 돌 열 여섯 개를 끊어내니, ...저가 이를 손에 받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 또 다시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 돌을 만지시어 이 돌로 암흑 중에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에게 빛을 주리이다.” (이더 3:1, 4)

야렛의 동생의 강한 신앙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펴사 그 손가락으로 돌을 하나씩 만지시니라. 이때에 야렛의 동생의 눈에서 막이 걸려져 저가 주의 손가락을 보니...사람의 손가락 같았더라...” (이더 3:6)

후에 주님은 직접 야렛의 동생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니라. 나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빛을 갖게 되어, 나의 아들이 되며, 또한 나의 딸이 되리라.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내가 보았느냐?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 (이더 3:14-16)

예수가 육신을 갖고 지상에 오시기 전에는 영체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세 번째의 사건은 니파이에게 그가 죽을 몸으로 세상에 올 것이라고 공포한 일입니다.

약 주전 6년경, 레이맨인 예언자 사무엘은 예수의 탄생일에 한 낮과 밤과 그 다음 낮 동안 암흑이 거두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표적이 나타날 날을 정하여 그날이 이미 지났다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힐라맨의 손자 니파이가 “백성들이 이같이 잔악함을 보고 마음으로 크게 슬퍼하여,

“나아가 땅에 엎드려 백성들을 위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그 백성들은 선조의 전언을 믿은 것으로 하여 죽음에 처하게 되었음이라.

“저가 종일을 두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에, 보라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왔음이라. 오늘 밤으로 표적이 보일 것이요.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니파이에게 이르신 말씀이 그 이르신 대로 성취되었으니, 보라 해는 지나 어둠이 덮히지 아니하는지라...” (니삼 1:10-13, 15)

이 사건은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대한 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갖고 제심을 입증해 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구세주의 신성에 대한 나의 간증을 더욱 강하게 해 줍니다.

그가 지상에 살아 계시면서 성역을 베푸신 기록은 그분의 신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이신 지혜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가 12세였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눅 2:46-47)

누가 기록한 다음 사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다운 지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하여 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라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마가복음 12:17)



마가의 간증: 그리스도는 신성한 주세주이시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예수를) 잡고자 하되…”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의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누가복음 20 : 19-22)

만일 예수가 가하다고 대답한다면 유대인을 격분시키게 되며, 불가하다고 대답한다면 로마의 법을 거스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 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누가복음 20 : 23-26)

예수는 모든 지혜를 지니신 분일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다음의 기록은 예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나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7 : 24-27)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케에 넣는 모든사람 보다 많이 넣었다.” (마가복음 12 : 43)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벧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 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 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 지라”(마가복음 11 : 1-6)

주님의 전지 전능하심이 증명된 성구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1)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요 2 : 1-11),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마 8 : 23-27, 막 4 : 35-41, 눅 8 : 22-25),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써 (마 14 : 24-33, 막 6 : 47-52, 요 6 : 16-21) 자연의 힘을 지배하는 권세를 보이셨고, (2)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으로써 (요 4 : 46-54),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침으로써 (마 8 : 14-15, 막 1 : 29-31, 눅 4 : 38-39), 혈루병을 가진 여인을 고쳐 줌으로써 (마 9 : 20-22, 막 5 : 25-34, 눅 8 : 43-48) 질병을 정복하는 권세를 보이셨으며, (3) 거라사의 두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막 5 : 1-20, 눅 8 : 26-39),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소년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마 17 : 14-21, 막 9 : 14-29, 눅 9 : 37-43), 귀신과 악귀를 내어 쫓으시는 권세를 보이셨고, (4)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눅 7 : 11-17),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심으로써 (요 11 : 17-46), 사망을 이기시는 권세를 보이셨으며, (5)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부활함으로써 (눅 24 : 1-6, 마 27 : 52-53) 무덤을 이기시는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이 지상에서 행하신 모든 행적, 그의 지혜로움, 그의 전지전능하심, 무덤을 이기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나의 간증을 확실하게 굳혀 줍니다.

그러나 나의 간증은 모로나이의 권고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간구”(모로 10 : 4) 하였고, 또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리라”(교성 9 : 8)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권고대로 행한 결과로 얻은 성신의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권고에 따랐으며, 내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신을 통하여 내게 간증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압니다.

# 신약성서의 세계

**한** 세계사를 더듬어 거슬러 올라 가면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라 하는 조그마한 나라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상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의 생애에서 그 중심점을 찾게 된다. 그 이후 그와 같은 사건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나 그 국가가 색다른 특이성을 지녔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이나 국가보다 더 평범한 인간과 국가였다. 그는 유대인이요, 목수요, 로마의 속박인이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산과 호수와 백합과 밀이 있는 곳이었다. 그는 먼지나는 시골길과 소음이 들리는 성의 거리를 걸어 다니셨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사셨던 때와 장소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도표에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와의 사이를 접하고 있는 시대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다. 팔레스타인은 로마와 회람 양쪽으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받았다. 농사 짓기, 고기잡기, 세금법, 안식일 준수 등의 세속적인 일에서 유대인은 공통적인 면을 볼 수 있으나, 정치적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분리되어 있었다. 이 조그마한 나라의 지형을 관찰해 볼 때, 우리는 정치적, 지리적으로 이 나라가 여러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 복음서를 읽어 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을 연대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전의 준비를 갖추고 신약 성서의 세계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신약 성서상의 시간 호칭	절정의 시대의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참조 성구
제삼시 제육시	오전 9시 정오	마 20:3; 막 15:25 마 20:5; 27:45 막 15:33; 눅 23:44; 요 4:6; 19:14
제칠시 제구시	오후 1시 오후 3시	요 4:52 마 20:5; 27:45; 46 막 15:33-34; 눅 23:44
제십시 제십일시	오후 4시 오후 5시	요 1:39 마 20:6, 9
밤 시간은 삼경으로 나뉘었으며 각 경에 문지기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막 13:35)		
신약상의 호칭	절정의 시대의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참조 성구
일경	밤 9시	막 13:35
이경 삼경	한밤중 12시 닭울 때, 새벽 3시	마 25:6; 눅 11:5 마 26:74; 막 14:68, 72; 눅 22:60, 61; 요 18:27
사경	새벽 6시	마 14:25; 막 6:48

부 오 룬 피 룬 촬영



**바사(페르샤)통치 시대  
(주전 538 - 332년)**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페르샤) 왕 다리오는 추방당한 유다 족속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다. (주전 538년) 경전의 기록에 의하며 세 차례의 이주로써 이것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말기에 배도와 페르샤의 통치가 현저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458	450	445	432	332	323	301
아	아	아	아			

주전 459년, 에스라의 지휘하에 추방당한 유대인의 두 번째 그룹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감. (스 7: 1, 6-29)

약 주전 450년, 예언자 말라기가 성약의 거스름을 경고함. 배도가 백성들 간에 부리를 박기 시작함.

주전 445년, 임명된 통치자 느헤미아가 또 다른 그룹을 인도함. (느 2: 1-11; 5: 14; 7: 5-73) 기록책을 회중 앞에 갖고 와서 회중에게 읽어 줌 - 에스라가 서기로 임명됨. (느 8: 1-8) 유대인의 회당 설립의 기초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됨.

약 주전 432년, 느헤미아가 다시 돌아와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는 배도 무리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혁을 시도함. (느 13장)

구약의 기록이 끝남. 이때로부터 메시아(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유대인 가운데서 일한 예언자로 알려진 사람이 없음.

주전 332년, 마케도나의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희랍인들로 하여금 새 점령지를 다스리게 하였으나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예속되어 있었음. 이때부터 희랍과 마케도나가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음.

**신약상의 화폐**

신약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고 있던 화폐로는 세 종류가 있다. 즉 로마의 공식 화폐(제국 화폐), 옛 희랍에서 통용되던 지방 화폐, 그리고 유대인의 화폐였다. 따라서 돈을 바꾸는 일은 일상적인 거래요, 신약 시대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화폐의 공식 명칭	제임스 왕 시대의 번역사들이 사용한 용어	참 조 성 구	화폐 금속
유대 렘돈	마이트	막 12: 42 눅 12: 59; 21: 2	청동
희랍 드라크마 반 세겔 세겔*	은전 성전세 동전 은화	눅 15: 8-9 마 17: 24 마 17: 27 마 26: 15; 27: 3, 5-6, 9; 막 14: 11	은
르나	돈 파운드	마 28: 12, 15 눅 19: 13, 16, 18, 20, 24-25	
로마 고드란트 앗사리온 데나리온	호리 호리 푼	마 5: 26; 막 12: 42 마 10: 29; 눅 12: 6 마 18: 28; 20: 2, 9-10 13: 22; 19; 막 6: 37; 12: 15; 14: 5; 눅 7: 41; 10: 35; 20: 24; 요 6: 7; 12: 5	청동 구리 은
오리온	(금)	마 10: 9	금

\* (혹자는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받은 돈과 군사에게 입을 막기 위하여 주는 "돈은 세겔이라" 한다고 주장함.)



#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

유타 대학교 신학 연구원 대학부 교사, 에드워드 제이 브랜트 형제가 작성한 도표.

	희랍 통치 시대 (주전 332 - 175년)	마카비 부자의 반란 (주전 172 - 142년)	독립 시기 (주전 142 - 63년)	로마 통치 시대 (주전 63년 - 주후 73년)
	알렉산더의 정복과 함께 유다 지방에는 희랍-마케도나 왕조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하여 유다 백성에게는 헬레니즘의 영향이 들리게 되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제국의 지도력은 점차로 분열되었다. 결국 유다는 희랍-애굽 왕의 지배권으로 들어 갔으며, 희랍-애굽 왕의 돌레미라 불리게 되었다. (주전 301-199년) 이 지방 자치 국가는 실루딘 왕조인 희랍-수리아 왕이 책임을 맡았다.	봉건 군주와, 유다에게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요하는 데에 대항한 반란	하스몬가(마카비)가 더 많이 불리움)가 유대인을 이끌고 독립 국가로 인도함. 이 시기를 "서력 기원"이라고도 한다.	폼페이에게 항복함으로써(주전 63년)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이 통치 기간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거쳐 주후 73년까지 계속되었다.
C. 283	198	175 168 167 164	142 129	63 37 20 C B A D
주전 323년, 알렉산더가 죽은 후, 대제국은 자칭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4 명의 후계자에 의해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은 제국의 분쟁지 사이에서 완충국의 역할을 하였다.	주전 301년, 팔레스타인에서 유다를 통치하던 돌레미 왕조 시대가 시작된 것은 영토를 마지막으로 정복했을 때였다. 돌레미 왕조는 애굽의 희랍 통치자였다. 그들이 유다를 통치한 것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주전 168년, 반란이 무참하게 진압되었다. 더우기 수리아는 그들의 통치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아크라라 하는 요새를 지었다. 반대파가 발생하였다. 하시딤 ("경건파")이라고 알려진 이 그룹은 모세의 율법을 비밀리에 지키거나 광야에서 지킴으로써 소극적인 반항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은 바리새인을 나오게한 운동으로 간주된다.)	주전 142년, 유다 백성이 계속 영토를 정복하여, 예루살렘의 아크라 요새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토를 마침내 장악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오랫동안 바라던 독립국가가 이룩되었다.	주전 37년, 로마 원로원의 허락을 얻어 유다의 군주로 가게 된 헤롯은 그를 "반 유대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을 폭정으로 다스렸다. 엄격한 제도를 통하여 질서가 수립되었으며, 그의 통치로 백성들은 희랍-로마 문화를 부흥시켰다.
주전 약 283년, 헬레니즘의 영향이 유대에 미치면서 구약의 희랍어 역(세투아진트)이 나타나게 되었다. 돌레미 2세 알라테보의 지시하에,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의 공식 승인을 얻어 이사야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권위있는 장로들에 의하여 완수되었다.	주전 167년, 수리아에서는 성전을 모독하고, 이를 희랍의 제우스 신에게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령이 발표되었다. 이방인의 신들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당했다.	주전 129년, 사마리아와 이두매(에돔의 희랍)가 유다에 예속되었으며,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	주전 63년, 실루딘 왕조의 희랍-수리아 왕국을 정복한 폼페이와 로마의 병력은 예루살렘을 지배하였고, 유다는 봉건 국가로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주전 20년, 헤롯은 성전을 재건축하고 예루살렘에 복합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성전 자체에 대한 공사는 8 년만에 완성이되었으나 성전에서의 모든 계획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었다.
주전 198년, 실루신 왕조로 알려진 수리아의 희랍 통치자는 영토를 정복하고, 봉건국가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주입시켰다.	모딘에 살고 있던 만다디아 - 후에 마카비라 이름되었던 하스몬가의 일원 - 는 그의 백성에게 강제로 법령을 강요하려는 수리아의 관리에 대하여 반항했다. 이와 같은 예상된 반란은 전국에서 일어났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유다는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주전 129년, 사마리아와 이두매(에돔의 희랍)가 유다에 예속되었으며,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	주전 63년, 실루딘 왕조의 희랍-수리아 왕국을 정복한 폼페이와 로마의 병력은 예루살렘을 지배하였고, 유다는 봉건 국가로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헤롯은 그리스도가 탄생한지 약 1년후, 주전 4년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학자는 그리스도가 주전 5년에 탄생한 것으로 간주함.)
주전 175년, 통치자들이 희랍 문명과 문화를 탐구하여 강제된 적응시킴으로써 백성들은 크게 타격을 입었다. 성전을 빼앗기고, 희생 제물의 의식, 절제, 명절, 안식일들이 금지되었으며, 경전을 없애도록 명령을 받고, 많은 율법자가 불복하였으며, 지도자의 신권은 대제사의 직분이 매매되면서 무효 되었다.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의 지도력 하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재헌납하였다. 이날은 매년 수전절 또는 하눅카라 하여 기념되고 있다. (때때로 빛의 축제라고 하기도 한다.)			

# 희랍 - 로마가 성지에 미친 영향

티 에드가 라이언 글



**희**랍의 성지는 고대 애굽의 비옥한 나일강 계곡과 디그리스, 유브라테스강을 연결하는 대상로(대상들이 다니는 길)에 위치하고 있다. 이 길고 긴 활모양의 대상로는 양쪽 고장의 상품을 운반하는 길이었다. 이 큰 두 개의 계곡 사이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놓여 있다. 이 사막을 가로 지르지 않기 위하여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대상로는 “비옥한 반원” 모양으로 나 있다. 이 길로 상인, 가내수공업자, 무역상인들이 동양의 향료, 다메섹의 비단, 철, 친넌, 페르시아와 바빌론의 양탄자, 팔레스타인의 곡식, 말린 과일, 포도주, 기름 그리고 애굽과 아프리카의 향수, 흑단, 상아, 보석 등을 사고 팔았다. 역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길은 유목민, 대상, 이주민, 정복자의 군대들이 지나는 길로 바뀌었다.

그와 같은 정복자 중의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그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군주였다. 그는 인간 사회에 희랍의 문화를 전염병처럼 침투시킴으로써 완전히 희랍 문화에 공헌하였다. 유명한 희랍의 철학자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제자들에게 희랍의

문학, 과학, 철학, 종교,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완전한 미로서 강조하는 희랍 예술에 대한 위대한 존경심을 심어 주었다. 청년 시절에 알렉산더는 세상의 젊은이들이 희랍 고전의 가치를 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 평화, 풍부한 음식, 풍류적인 생활, 불사불멸을 보장해 주는 진실한 종교적인 확신, 즐거운 생활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정부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고, 당시의 세상을 정복할 것을 시도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알렉산더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기존 관심사 등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우려가 생기지 않게 새 도시를 세웠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레타, 알렉산드로폴, 알렉산드로폴리스, 메가볼리(성지와 콜—수리아의 10개 도시중 5개 도시) 그리고 기타 다른 도시의 기초가 다져졌다. 학교가 세워졌으며, 만일 인간이 미신, 거짓 종교, 신비주의 등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낙원의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소망이 가득했다.

20세에, 알렉산더는 마케도냐와 희랍의 왕이 되었다. 그로부터 13년 후

인 주전 323년,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제국은 희랍 본토, 소아시아, 디그리스—유브라테스 강 계곡, 그리고 동쪽으로 인더스강과 흑해변방, 팔레스타인, 애굽, 수리아, 페르시아(바사)를 포함하였다. 그의 부하 3명이 이 제국을 나누었으나, 그중의 한 사람도 알렉산더 대왕이 지녔던 열의, 힘, 정치가의 기백, 화신을 지닌 사람이 없었다. 애굽을 받아 다스린 톨레미와 수리아와 동양을 받아 다스린 실루키스는 모두 주전세기 로마에 정복될 때까지 존속했으나, 이 두 왕국 모두 알렉산더 때와 같이 동양과 근동 지방에 헬레니즘의 문화를 강조하지 않았다.

그후 몇 세기 동안 후기 알렉산더 왕조는 붕괴되어 로마 제국으로 재합병되었다. 로마는 그들이 정복한 국가를 모두 하나로 융화시키려는 일환으로 국가가 문화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이 제국 곳곳에 세워졌으며 신비로운 신들과 위대한 인물들을 표시한 조각품이 곳곳에 세워졌다. 극장과 음악회장이 건립되었고, 극작가, 역사가, 시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체육

과 근육 운동으로 잘 발달된 신체의 미가 크게 강조되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헬레니즘으로 말미암아 이 문화를 유대의 젊은이들에게 퍼뜨리려는 정부와 유대인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회람 문화의 여러 가지 이상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종교와 가정 생활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양의 형상이라도 그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 발, 머리 목을 제외한 신체의 어느 부분도 내보여서는 안된다는 수세기 동안 내려오던 엄격한 유대인의 표준에 비추어 볼 때 수영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체의 조각이나 그림을 유대인이 배척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베일을 쓰고 다녔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수영을 하거나 목욕을 하는 공중탕은 없었다. 로마인의 극장에서는 유대 전통에 위배되는 형태로 성을 묘사했다. 축첩에 관한 것이 토론되기도 했고, 이를 죄로 다스려 벌을 주는 일 없이 다루어졌다. 이것도 역시 이와 같은 행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의 의견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유대 종교는 예언자와 축복사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는 하나님과의 대화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간의 이성, 관찰, 경험을 종교의 형태를 빌어 도입시킨 것이었다.

유대인은 청소년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려는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였다. 유대인이 혁명을 일으키기 쉬운 민족(주전 142년에 독립 국가를 세웠었다)이라는 것을 안 로마 정부는 유대 문화를 파괴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예루살렘 근교에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짧은 옷을 입은 청소년들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였으며, 소녀들은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모양의 옷을 입고, 베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중탕을 사용하는 것을 배웠다. 학교에서는 이교도적인 예술, 문학, 과학, 그리고 도덕에 관한 회람인의 사상을 가르쳤다.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세포리스라 하는 새로운 회람 문화 센터가 세워졌다. 이 센터는 예수의 소년 시절에 세워진 것으로 갈릴리 지방에 회람의 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해 지은 것이었다. 정부 관리에게 있어서 이 센터는 유대인의 결속을 파괴하는 수단이 되었다. 유대교의 열성파들이 혁명을 일으키거나 유대 땅에서 로마의 세력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 이 모든 계획은 여러 나라로 이루어진 로마 제국에서 유일 종교인 유대교를 없애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었다.

로마는 각 분할 지역에 왕을 두고 왕들에게 그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방대한 제국을 다스렸다. 그들은 왕이라는 칭호는 받으나 지역 총독의 관할 하에 있게 되었다. 우리는 유대의 봉건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로마 정부에서 부여한 종교, 정치적 권능은 제한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 일어나는 운동이 확대된다면 로마 당국은 이를 또 다른 유대인의 혁명으로 보고, 과거에 난을 진압하지 못했으므로 유대 통치권을 유대의 통치자에게서 박탈해 갈 것을 그들이 두려워 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요 11:48 참조)

예수가 탄생하였을 때,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으나, 그는 수리아의 로마 총독의 관할 하에 있었다. (눅 2:1-2 참조) 헤롯이 죽자 그의 영토는 세 아들에게로 나뉘어졌으며, 직위가 “에트나키”(종족 또는 국가의 통치자)로 내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왕이라고 불려졌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을 때, 가이사랴에 본부를 둔 로마 총독이 성지에 부임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에 총독이 온 후에 가이사라는 그의 거주지가 되었다. 총독은 대체로 유허절, 오순절, 장막절, 수전절 등과 같은 유대의 큰 명절에 참석하기 위하여서만 예루살렘으로 올라 갔다. 그러한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총독은 안토니오 요새에서 머물렀다. 이 요새는 일년 내내 소수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는 많은 로마 군대로 증병된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사셨을 때와 초기 기독교 시기에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통치권 밑에 있었다. 팔레스타인은 비교적 작은 땅이지만 그 위치는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크게 이로운 곳이었다. 정복자, 상인, 군대, 대상들에게 성공을 안겨다 준 길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길이 되었다.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옛 상인이 지나던 같은 길로 기독교는 세계 여러 곳으로 퍼져 간다.

티 에드가 라이언은 유타 대학 솔트레이크 신학 연구원 교사이다. 그는 솔트레이크 캐년 림 스테이크 로즈 크레스트 워드의 대제사 그룹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



# 팔레스타인의 일상생활

에드워드 제이 브란트 글

**한** 구세주께서 살아 계셨을 때, 유대인의 생활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떠한 모양의 집에서 살았는가? 직업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지형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때의 활동을 볼 수 있던 도시와 마을의 폐허가 묻혔다. 고고학자들이 오랜 동안 발굴해 낸 것으로 우리는 고대에 관한 여러 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대 기록은 정확한 그림을 수집하는 데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신약은 예수 당시의 유대 민족의 일상 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모세의 율법은 백성들의 종교적인 기반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배도로 말미암아 이의 근본 목적은 “전통”의 발달로 인하여 흐려졌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전을 해석했는데도 그 결과는 온당한 결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전통”은 개인의 일상 생활에 부담이 되었다. 구세주는 이와 같은 체계에 집착한 사람들을 비난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

명을 범하느뇨…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 15:3, 6; 막 7:3, 8-9, 13 참조) 그러나 사람들은 명령에 크게 영향을 입었다. “율법의 말씀보다 서기관과 법학자의 말이 더 그럴 듯하게 받아들여졌다.” (Sanh. 11. 3)

백성들간에 일어났던 각 종파의 차이는 주로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얼마나 따르고 받아들이느냐에 좌우되었다. 여러 종파에 속한 사람의 수는 적었다. 조세퍼스의 기록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의 주민(약 수십만) 중에서 바리새인은 약 6,000명뿐이었다. (Antiq. XV 11. 3, 4) 제사권을 주장하는 사두개인은 이보다 더 적은 수의 귀족 그룹으로, 정치와 종교 지도자의 요직을 많이 맡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니, 이는 외국 통치자들이 그들을 지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도 백성이 지키는 “전통”에 다소 굴복했다. 다른 파들도 그 당시에 존재했다. 엡세베파에도 많은 사람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중으로부터 고립되었다. 기타 작은 파들은 미미했다.

예루살렘은 종파가 번성하는 곳으로 그들의 추종자들은 성 변방에 살았다. 도시와 마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암하아레즈(땅의 주민)라고 불리웠다. 전통에 관하여 자세히 배우지 못한 그들은 무지한 시골의 평민이었다.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의 주민들은, 종파의 견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시킬 만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경전의 기록에서 우리는 종교가들의 이 농촌 주민에 대한 미심쩍은 견해를 알아 볼 수 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 1:46)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요 7:52) 그러나 예수는 이 땅의 주민들 중에서 십이사도를 부르셨다.

그당시, 많은 전통에 영향을 받을 때, 조동받고 지배적인 종파의 일원이 아닌 사람이 평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주나 소작인이거나 목동으로 농사에 종사하였다. 기타 다른 사람들은 장사, 석수, 구두수선장이, 양복장이, 대장간장이, 도공, 목수, 배짜기, 염색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 같은 종류의 기술장은 일반적으로 틀이 있고,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때때로 방 하나를 주인이 가게로 사용하기도 했다. 지붕은 대개 파티오(안뜰)의 일종으로 사용되었으며, 손님방이나 잔치방으로 쓰이기도 했다.

종교의 영향은 평민에게까지도 초기부터 가정에 뿌리박혀 있었다. 아침, 저녁 식사들기 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린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다. 어머니는 어린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녀가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그리하여 5세가 되면 큰 소리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미쉬나에는 유대 남자가 각 연령에 따라 성취해야 할 이상적인 성품이 나와 있다. “...5세에 이르면 [레위기부터 시작하여] 경전을 [읽을 수 있으며], 10세에는 미쉬나를 읽고, 13세에는 [율법의 아들]의 계명을 읽고, 15세에는 탈문을 읽으며, 18세에는 혼례를 치루고, 20세에는 [장사를] 시작하고, 50세에는 충고를 줄 수 있으며, 60세에는 장로가 될 수 있게…” (Aboth 5, 21)

남자가 6세가 되면 그 지역의

학교에 들어 갔다. 대부분 유대인 회당에 학교가 부속되어 있었다. 교사는 결혼한 남자로서, 학생의 부모가 자발적으로 주는 공납금을 받고 생활했다. 경전 연구는 폐위기부터 시작하여 모세5경을 마치고, 예언서를 공부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책을 공부했다. 또한 나이와 학년이 높아 감에 따라 전통에 대하여도 배웠다. 학교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나 5시간뿐이었기 때문에 소년이 장사에 관해 배울 시간은 많이 있었다.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아버지나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소년은 장사를 배웠다. 16세나 17세에 학업을 계속하여 성과가 좋으면 유명한 선생에게 가서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5년간 학교에 다니면서 생업을 찾기는 학교를 떠났다.

여성의 교육은 어떠한가? 여자의 교육은 완전히 가정 교육이었다. 여자의 어린 시절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성구를 암송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자는 집안 일과 어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을 배웠다. 그러나 축제, 명절 축제, 유대인 회당 예배 의식 등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것을 많이 훈련받을 수 있었다.

유대인 회당 예배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 예배 의식은 특별한 기도과 세마 낭독으로 이루어졌는데, 세마란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발췌한 경전 약조의 일종이었다. (신 6:4-9, 11:13-21, 민 15:37-41) 예배 의식의 주요 순서인 설교가 그 후에 이어졌다. 설교는 모세서를 체계적으로 나누어 매주 안식일마다 읽을 수 있도록 계획한 부분을 읽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율법서를

읽은 후에 예언자가 읽은 율법에 관계되는 공과를 갖게 되고, 일반적으로 설교로 예배가 끝나게 되었다. 명절에는 특별한 예배를 가졌으며, 농촌 사람들이 장날에 시장에 가느라고 회당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월요일과 목요일에 특별 예배를 가졌다. 예배는 절기와 연사에 따라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가졌다. 남자와 여자는 따로 떨어져 앉았다. 일반적으로 가장자리에 간막이를 하거나, 여자들이 본좌석에 앉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앉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공과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결혼은 종교상의 의무로 여겨진다. 남자의 경우, 16, 17세가 적령기였으며 20세면 늦은 셈이었다. 여자는 12세에서 하루만 넘으면 아버지가 결혼시킬 수 있었다. 이 연령이 못되어서 결혼한 부부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있었다. 여자가 법적인 연령이 넘으면 약혼이나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약혼과 결혼은 모두 문서상의 계약을 요구하며, 이혼으로만 이 계약이 깨질 수 있었다. 약혼은 결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미리 약속하는 기간이었다. 이혼은 연장자들이 만들어 놓은 해설과 관습에 의하여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서가 없는 이혼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당시 정부에 대한 문제는 세금 문제에도 나타나 있었다. 그 당시 전 국토는 로마의 통치 하에 있었으며, 유대에는 로마 총독이 있었고 다른 곳에는 군주가 있었다. 로마의 대표자들은 주로 군인으로서 주민의 민사 사건을 처리했다. 유대 민족은 지역 사회의 규

모에 따라 3명 내지 23명의 여러 가지 규모의 산헤드린 즉 “공회”에 의하여 통치받았다. 모든 지방 산헤드린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 산헤드린의 지시를 받았다. 그들의 권한은 종교적인 일에만 국한된 것이긴 했으나 모세 율법과 전통 때문에 그 범위는 상당히 넓었다. 각 마을마다 원로라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다. 이 원로들은 주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었으며, 일반 문제도 약간 다루었다. 백성들은 이들 다스리는 자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다. 여자는 12세 이상, 남자는 14세 이상부터 세금을 바쳤다. 성전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성전세와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성전세가 있었다.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하는 공세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교 회당, 학교, 공공 사업, 사회 등을 위해 바쳐야 하는 여러 가지 세금은 유대의 평민에게는 일상 생활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셨을 때 유대 평민의 일상 생활을 후에 남은 잡비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잠시 훑어 보았다. 그러나 신약에서 나타난 “전통”의 영향력은 경전의 새로운 성약의 시대에 부분적으로 다시 되살아 나는 것으로 보아 그 가치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세 율법과 이 “전통”이 어떤 이에게는 저주스러운 것이었던 반면에, 다른 이에게는 복음의 율법에 대하여 준비하는 초석이 되었다. (갈 3:13, 24-25 참조)

에드워드 제이 브란트는 유타 대학교 신학 연구원 대학부 교사이며, 샌더 유타 노스 스테이크 16와드 감독단 보좌이다.



# 행복의 나무

(제 2 부)

에바 그레고리 드 피미엔타 글



지금까지의 줄거리 : 멕시코 어느 마을의 마음씨 고운 목동 아드리안은 큰 음악회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 어느 날 저녁 한 늙은 집시 노파를 알게 되어 집으로 데리고 갔다. 노파는 소년과 가족에게 노파가 보고 들은 아름다운 음악회장과 감미로운 음악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노파는 소년의 집을 떠나면서 소년에게 타바친이라는 “행복의 나무” 씨앗을 주었다. 노파는 씨앗을 주면서 이 씨앗을 잘 키우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다. 나무가 자라자 황금색과 진홍색의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었다.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나무를 그 마을의 부자인 지주가 사겠노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사람이 잔혹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드리안은 나무를 팔기는커녕 씨앗 주머니 하나도 주려 하지 않았다.

아드리안은 이 씨앗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다.



**행** 처음에 아드리안은 타바친 나무의 씨앗을 팔까도 생각해 보았다. 돈 포피리오 파즈가 그 나무를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내고 사려 한다면 씨앗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았다.

소년이 씨앗 주머니를 열어 보니 그 속에는 씨앗 20알이 있었다. 나무에 달려 있는 수많은 씨앗 주머니를 쳐다보면서 소년은 각 씨앗에 4센트씩을 계산해 보았다. 소년은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의 머리 속에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부자인 지주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 사람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아드리안은 생각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야.’ 소년은 나무라고는 몇 그루 밖에 없는 이웃 마을의 광장과 먼지 투성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았다. 소년의 머리에는 불현듯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파드레(아버지)” 다음날 아침 소년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오늘 아빠 혼자 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드리안이 읍내에 간 날은 시청이 문을 연 날이었다. 소년은 머뭇거리며 들어 가서는 복도에서 걸레질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사했다.

소년은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분에게 천천히 다가 가면

서 그의 큰 솜브레로(멕시코에서 쓰는 모자)를 벗었다.

“시뇨르 알칼데(시장님이지요)?” 소년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씨, 호세 로페즈. (그렇다네 무슨 일로 왔지)”

아드리안은 크게 숨을 몰아 쉬고는 “광장을 아름답게 하는 데 좋은 아주 묘한 나무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세의 푸른 눈은 즐거운 듯이 반짝였다.

“네가 타바친 나무 주인이야?” 그가 물었다.

“네, 시장님” 아드리안이 대답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시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 씨는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잘 심고 돌봐 주어야 하는데 누가 그걸 심겠니?”

“제가 심을게요. 시장님” 아드리안이 말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때 일을 끝내면 가꿀게요.”

아드리안은 씨를 뿌리고 나서 씨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주위에 세우고는 마치 자신의 나무인양 정성들여 가꾸었다. 나무가 자라서 잔 손질이 필요없게 되자 시장은 아드리안을 특별한 모임에 불렀다.

“네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은데 말이다.” 시장이 말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네가 꼭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렴?”

아드리안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 시장의 둥근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소년의 가슴은 놀라움과 희망으로 터질 것 같았다. 소년은 자기가 그렇게도 원하던 것을 감히 부탁해도 괜찮을지 망설였다.

“시장님.” 소년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는 홀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런 소원쯤이야 어렵지 않지. 내 친구 중에 늙은 음악 대가가 한 분 계시단다. 그분에게 데려다 주지.”

시장님이 아드리안을 데리고 늙은 음악가의 집을 찾았을 때 그 음악가는 “나는 이젠 너무 늙어서 거의 귀머거리가 되었다네. 게다가 이 애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나” 하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아드리안은 재빨리 안주머니에서 피리를 꺼내, 음악가가 말리기도 전에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늙은 음악가는 손을 귀 뒤에 갖다 대고, 몸을 앞으로 굽혀 자세히 듣고 있었다. 곧 음악가는 만족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드리안이 곡을 끝냈을 때, 음악가의 눈동자는 만족스러움으로 반짝거렸다. “내가 가르쳐 주지.” 그는 말했다.

“하지만...” 아드리안은 갑자기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했다.

“걱정 마라.” 시장님은 소년의 어깨에 팔을 올려 놓으면서 말했다. “시에서 바이올린을 사 줄테니.”

“감사합니다!” 아드리안은 큰 소리로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소년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워서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드리안은 부모님께 이 바이올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렸다. 부모님의 기쁨 또한 말할 수 없이 컸다. 아드리안은 잇달아 “행복의 나무 때문이야! 행복의 나무가 내 꿈을 이루어 준 거야!”라고 말했다.

마을에 심은 타바친 나무에 꽃이 만발했을 즈음에 아드리안은 늙은 음악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웠다.

“자, 이젠 도시로 가서 유명한 음악가에게 배워도 되겠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걸요.” 아드리안이 말했다.

“너한테는 돈 이상의 것이 있지 않니? 바이올린을 켤 때 확비는 물론이고 용돈까지도 벌 수 있을 게다.”

그리하여 아드리안은 옥사카로 향하여 길을 떠났다. 이틀 동안 걸어 가면서 어머니가 마련해 주셨던 음식은 다 먹어 없어졌다. 아드리안은 허기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해가 서산을 넘어 갈 무렵에 어느 조그만 마을로 들어 갔다.

‘이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아드리안은 생각했다. 아드리안은 거리 모퉁이에 서서 바이올을 꺼내 들었다. 처음에는 한두 명 정도가 호기심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연주가 계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게 되었다. 연주를 끝내자 사람들은 소년에게 많은 돈을 던져 주었다.

아드리안은 그 돈으로 도시로 가서 음식을 사고 여관의 작은 방을 얻을 수 있었다. 여관집 주인은 아드리안을 마굿간에서 일하도록 허락했다.

몇 주 후, 아드리안은 돈을 약간 받고 기꺼이 가난한 시골 소년인 자기에게 가르쳐 주려는 음악가를 찾을 수 있었다.

연주를 시작했을 때, 아드리안의 손은 떨렸다. ‘이분은 그 할아버지 음악 선생님이 아니지’ 아드리안은 걱정스러운 듯이 생각되었다.

‘저 선생님은 무섭게 생겼어, 하지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돼’

아드리안은 애써서 고향의 진홍빛 타바친 나무의 꽃을 생각했다. 황금색 점이 있는 붉은 꽃을 생각하자 아드리안의 손은 자신있고 부드럽게 움직여졌다.

“흠” 아드리안이 연주를 마치자 음악가는 말했다. “누구의 곡이지? 들어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지은 곡이에요” 아드리안은 다른 곡을 연주했어





야 했던 것은 아닌가하는 두려움을 갖고 대답했다.  
“불평없이 큰 희생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열심히 배워 보겠니?” 음악가는 물었다.

“네, 하겠어요” 아드리안은 약속했다. 그 순간부터 아드리안의 생활은 매우 달라졌다. 마굿간에서 일하는 대신 여관에서 저녁 때 손님들을 위하여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는 큰 연주회장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싶은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했다.

어느 날 아드리안이 여관의 큰 식당 식탁 사이로 다니면서 연주하다가, 낯선 몇몇 사람들이 벽난로가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곡이 그치자 그들 중 한 명이 아드리안에게 오라고 손짓했다.

아드리안은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는 키가 크고 마른 듯한 손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다.

“아드리안입니다.” 소년이 대답했다.

“오, 아드리안.” 손님이 말했다.

“내 친구가 그의 고향인 옥사카를 방문 중인데, 그를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지 않겠니?”

“제 연주가 선생님 맘에 드신다면, 기쁘게 선생님의 친구를 위해서 연주해 드리겠어요.” 아드리안이 대답했다.

“그러면 내가 1주일 후에 오마.” 손님이 말했다. “난 구일러모 프리에토라고 하는 사람이고, 내 친구는 돈베니토 주아레즈야.” 첫번째 이름만으로도 아드리안의 숨이 멎기에는 충분하였다. 구일러모 프리에토는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드리안은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돈베니토 주아레즈는 멕시코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드리안은 한번도 연습하지 않은 것처럼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했다. 중요한 행사를 갖는 날이 오자, 아드리안은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모습은 겁에 질린 외로운 목동이었다. 아드리안은 용기를 얻으려고 책상에서 피리를 꺼내서는 벨베트 자켓속에 넣었다.

오리우리한 저택의 응접실에는 저명 인사들과 갑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검정색 양복을 입은 구일러모 프리에토씨가 들어 오자 방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구일러모씨는 아드리안을 데리고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소년은 그 유명한 인사들 앞에서 자꾸만 조그마해지고 초라해지는 것만 같았다.

“한번 해 보거라.” 대통령은 소년과 인사를 나누고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다. 갑자기 아드리안은 대통령의 얼굴에 수심이 어려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분은 유명한 분이신데도 걱정하고 외로와 하시는구나.’

소년은 생각했다. 소년은 돈베니토 주아레즈가 전에는 옥사카의 산에서 살았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제빨리 아

드리안은 결정을 내려 바이올린 케이스를 닫고는 피리를 꺼냈다. 이광경을 본 구일러모 프리에토씨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려 했다.

“가만 있게.” 대통령은 시인에게 의자에 다시 앉으라고 손짓하면서 말했다. “소년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닌 모양일세.”

바이올린의 선율이 아니라 피리의 높고 감미로운 선율이 온 방안을 가득 채웠다. 아드리안은 들카나리아, 종달새의 노래를 불었다. 소년은 양과 목동의 개와 흐르는 시냇물의 노래를 불었다. 그가 피리불기를 그쳤을 때, 대통령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후 아드리안은 대통령의 슬픈 얼굴을 늘 기억했다. 아드리안은 큰 연주회장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그 얼굴을 생각했으며,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가난한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 줄 때도 그 얼굴을 생각했다.

어느날 그가 마차에서 내려 연주회장으로 올라 가면서, 아드리안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군중들이 그를 보려고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었다. 군중 사이를 뚫고 연주회장으로 올라 가는데 한 누더기 옷을 입은 구두타는 소년이 앞으로 왔다.

“나도 한번 아드리안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소년이 말하는 것을 아드리안은 들었다.

바이올리니스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무릎에 얹고는 바이올린을 꺼내어 켜기 시작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의 곡을 연주하더니, 자기 자신의 곡을 연주했다. 그는 바이올린으로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였다. 그러더니 예기치 않게 또 다른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행복의 나무 노래였다.

군중이 마침내 다 흩어지자, 아드리안은 갑자기 고향 집과 타바친 나무가 보고 싶어졌다. 그는 마차를 길에 내버려 두고 걸기 시작했다.

아드리안이 고향에 도착한 때는 타바친 꽃이 피는 시기보다 훨씬 먼저였으나 마을에는 타바친 꽃이 만발했었다고들 전해지고 있다.

“이제 행복이 뭔가를 알았어요.” 부모님과 인사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주는 것이예요. 제가 타바친 나무 씨앗을 준 것처럼 말이예요. 저는 제 음악을 연주하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 주겠어요.”

아드리안은 갈아 입을 옷가지와 바이올린을 가지고 멕시코 곳곳을 다니며 연주했다. 그가 연주한 곡 중에서 “행복의 나무 노래”는 모든 사람이 즐겨 듣는 노래가 되었다.

오늘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타바친 나무 사이에서 나는 감미로운 바람 소리가 아드리안의 바이올린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야 했던 것은 아닌가하는 두려움을 갖고 대답했다.

“불평없이 큰 희생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열심히 배워 보겠니?” 음악가는 물었다.

“네, 하겠어요” 아드리안은 약속했다. 그 순간부터 아드리안의 생활은 매우 달라졌다. 마굿간에서 일하는 대신 여관에서 저녁 때 손님들을 위하여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는 큰 연주회장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싶은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했다.

어느 날 아드리안이 여관의 큰 식당 식탁 사이로 다니면서 연주하다가, 낯선 몇몇 사람들이 벽난로가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곡이 그치자 그들 중 한 명이 아드리안에게 오라고 손짓했다.

아드리안은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는 키가 크고 마른 듯한 손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다.

“아드리안입니다.” 소년이 대답했다.

“오, 아드리안.” 손님이 말했다.

“내 친구가 그의 고향인 옥사카를 방문 중인데, 그를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지 않겠니?”

“제 연주가 선생님 맘에 드신다면, 기쁘게 선생님의 친구를 위해서 연주해 드리겠어요.” 아드리안이 대답했다.

“그러면 내가 1주일 후에 오마.” 손님이 말했다. “난 구일러모 프리에토라고 하는 사람이고, 내 친구는 돈베니토 주아메즈야.” 첫번째 이름만으로도 아드리안의 숨이 멎기에는 충분하였다. 구일러모 프리에토는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드리안은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돈베니토 주아메즈는 멕시코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드리안은 한번도 연습하지 않은 것처럼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했다. 중요한 행사를 갖는 날이 오자, 아드리안은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모습은 겁에 질린 외로운 목동이었다. 아드리안은 용기를 얻으려고 책상에서 피리를 꺼내서는 벨베트 자켓속에 넣었다.

으리으리한 저택의 응접실에는 저명 인사들과 갑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검정색 양복을 입은 구일러모 프리에토씨가 들어 오자 방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구일러모씨는 아드리안을 데리고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소년은 그 유명한 인사들 앞에서 자꾸만 조그마해지고 초라해지는 것만 같았다.

“한번 해 보거라.” 대통령은 소년과 인사를 나누고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다. 갑자기 아드리안은 대통령의 얼굴에 수심이 어려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분은 유명한 분이신데도 걱정하고 외로와 하시는구나.’

소년은 생각했다. 소년은 돈베니토 주아메즈가 전에는 옥사카의 산에서 살았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재빨리 아

드리안은 결정을 내려 바이올린 케이스를 닫고는 피리를 꺼냈다. 이 광경을 본 구일러모 프리에토씨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려 했다.

“가만 있게.” 대통령은 시인에게 의자에 다시 앉으라고 손짓하면서 말했다. “소년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닌 모양일세.”

바이올린의 선율이 아니라 피리의 높고 감미로운 선율이 온 방안을 가득 채웠다. 아드리안은 들카나리아, 종달새의 노래를 불었다. 소년은 양과 목동의 개와 흐르는 시냇물의 노래를 불었다. 그가 피리불기를 그쳤을 때, 대통령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후 아드리안은 대통령의 슬픈 얼굴을 늘 기억했다. 아드리안은 큰 연주회장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그 얼굴을 생각했으며,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가난한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 줄 때도 그 얼굴을 생각했다.

어느날 그가 마차에서 내려 연주회장으로 올라 가면서, 아드리안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군중들이 그를 보려고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었다. 군중 사이를 뚫고 연주회장으로 올라 가는데 한 누더기 옷을 입은 구두땀는 소년이 앞으로 왔다.

“나도 한번 아드리안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소년이 말하는 것을 아드리안은 들었다.

바이올리니스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무릎에 얹고는 바이올린을 꺼내어 켜기 시작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의 곡을 연주하더니, 자기 자신의 곡을 연주했다. 그는 바이올린으로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였다. 그러더니 예기치 않게 또 다른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행복의 나무 노래였다.

군중이 마침내 다 흩어지자, 아드리안은 갑자기 고향 집과 타바친 나무가 보고 싶어졌다. 그는 마차를 질에 내버려 두고 걷기 시작했다.

아드리안이 고향에 도착한 때는 타바친 꽃이 피는 시기보다 훨씬 먼저였으나 마을에는 타바친 꽃이 만발했었다고들 전해지고 있다.

“이제 행복이 뭔가를 알았어요.” 부모님과 인사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주는 것이예요. 제가 타바친 나무 씨앗을 준 것처럼 말이예요. 저는 제 음악을 연주하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 주겠어요.”

아드리안은 갈아 입을 옷가지와 바이올린을 가지고 멕시코 곳곳을 다니며 연주했다. 그가 연주한 곡 중에서 “행복의 나무 노래”는 모든 사람이 즐겨 듣는 노래가 되었다.

오늘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타바친 나무 사이에서 나는 감미로운 바람 소리가 아드리안의 바이올린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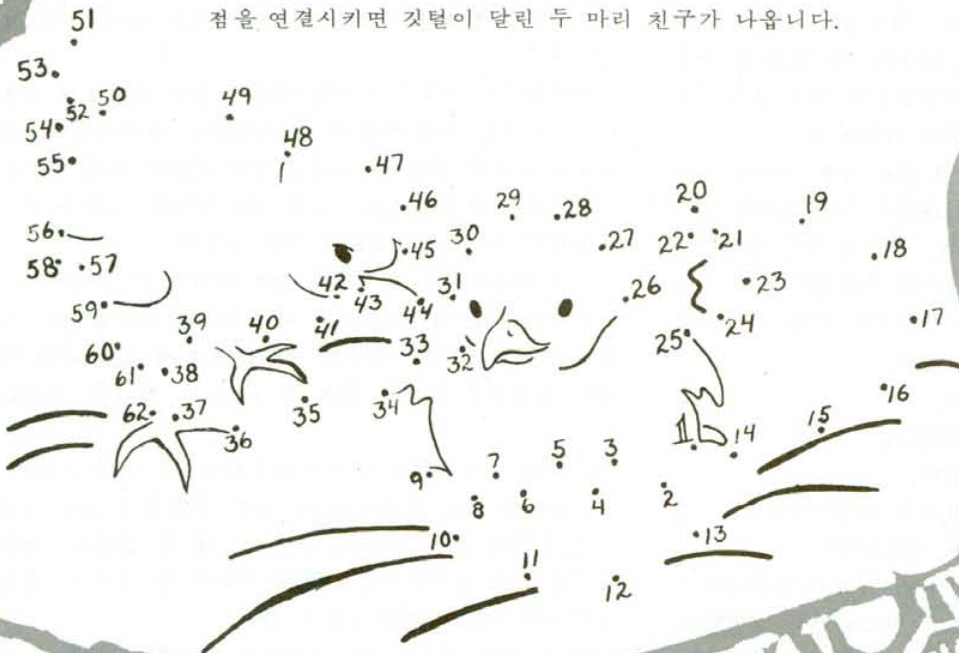
# 점잇기

에바린 웨 파드

점을 연결시키면 깃털이 달린 두 마리 친구가 나옵니다.

# 길 찾기

비벌리 존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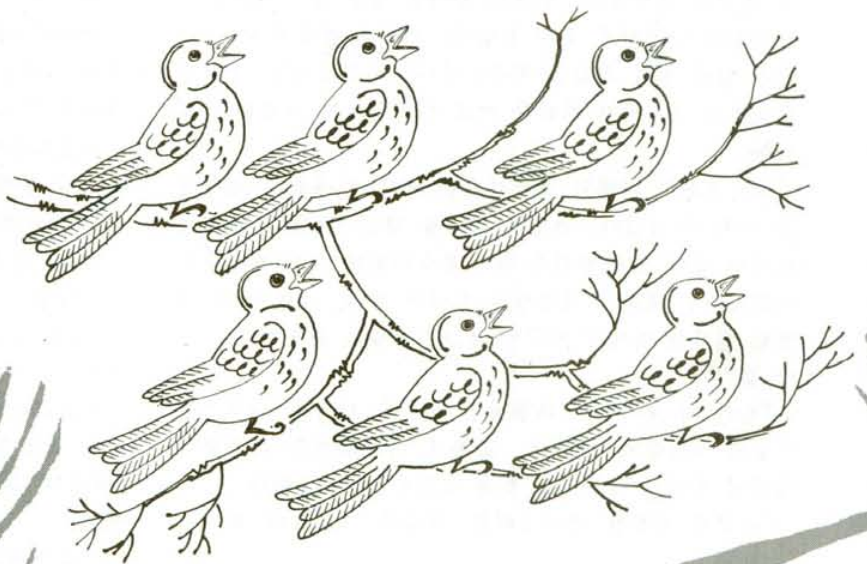
연이 날아 가려고 하니 빨리 선을 가로 지르지 찾아 가 붙잡으세요.

# 이상한 새는 어디 있나요?

앤 스테시

나머지 새들과 다른 새를 찾아 보세요.

# 심심풀이



## 방울 불기

찬시 마벌리

준비물 : 마분지로 만든 종이 튜브, 기름 종이, 마분지, 가위, 물감, 붓 종이 튜브를 예쁘게 색칠한다. 이것이 방울만드는 대롱이다. 물감이 마르면, 튜브 겉면에 두 줄로 흰색 물감으로 큰 원 4개씩을 그리고, 4개의 원에 각각 '방울 불기'라고 쓴다.

종이 튜브의 지름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원 4개를 마분지에서 오려 각원의 한쪽 면에 '뽕'이라고 쓴다.

방울 불기는 혼자 하기에도 재미있고, 여럿이 해도 재미있는 게임이다. 이 게임 방법은 종이 튜브에 종이 원을 넣고



원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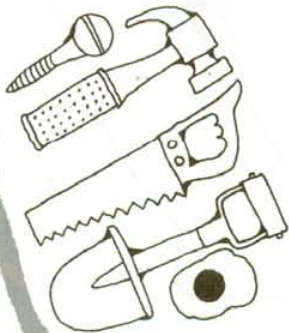
풍선은 그렇게 부는 게 아냐

붙어서 아무 글자가 없는 면이 나오면 1점을 얻고, '뽕'면이 나오면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된다. 10점을 선취하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 짜짓기

리차드 라타

그림과 그 이름을 맞추어 보세요.



- 망치
- 나사못
- 톱
- 삽
- 달걀



# 반짝이는 벽

아이리스 신더가드 지음



# 엿

힐다 라슨이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들어 오셔서, “힐다, 옛날 접시 치워라. 손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

“누가 오시는데요, 여보?” 어머니가 물으셨다.

“오늘 신전에서 함께 일하셨던 두 분이야.”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히버 킴블 형제님과 브리감 영 형제님.”

힐다는 브리감 영 형제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좋아서 웃었다. 힐다는 가족이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이사 온 이후 아버지가 일하시는 신전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형제님들을 모두 좋아했다. 그러나 특히 브리감 영 형제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좋아했다. 힐다와 어머니는 두꺼운 유리 찬장안에 보관해 둔 사기 그릇이 있는 조그만 방으로 갔다. 이 사기 그릇은 특별한 손님이 오시거나 명절 때에만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었지만 힐다는 그릇 하나 하나를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8인조 식기로서 예쁜 접시 여덟 장과, 컵, 컵받침 8개씩, 그리고 큰 국 그릇과 뚜껑있는 큰 그릇으로 된 정교한 드레스벤체 사기였다. 각 그릇의 가장자리는 옅은 청색으로 버드나무 가지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전네 주시는 접시를 힐다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이 사기 그릇은 말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너의 증조모님이 갖고 계셨던 거란다. 1770년에 영국에서 이리로 건너 오실 때, 할머니는 이 그릇 한장 한장을 이불보로 싸셨대. 바다에 풍랑이 일라치면 혹시 그릇이 깨질까봐 몹시 걱정하셨다지 뭐냐.”

힐다는 증조 할머니께서 그릇을 다시 꾸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

고 생각했다. 힐다의 할머니가 어렸을 때 컵받침 하나를 떨어뜨려 깨뜨린 것 이외에는 깨진 그릇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힐다의 어머니는 결혼 선물로 이 그릇을 받았는데 그만 설탕 단지를 깨뜨렸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다.

“엄마가 참으로 많이 울었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 그릇은 엄마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이었거든.”

힐다는 이 깨지기 쉬운 사기 그릇을 식당으로 조심스럽게 가져다 놓았다. 식탁을 모두 준비하자 어머니는 아름다운 푸른 주전자를 갖고 오셨다. 힐다의 기억으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귀한 그릇이었다. 어머니는 이 주전자를 식탁 중앙에 놓으셨다. “참 예쁘죠?”

아내의 어깨에 팔을 돌리면서 힐다의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참 아름답구로.”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은 맑지 못했다. “사기 주전자를 내 놓기를 참 잘했오.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오.”

힐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이 주전자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걸까?’

힐다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힐다는 언젠가 이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창가에 가서 햇빛에 비쳐 보던 것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좋은 사기는 투명하다고 설명하시면서, 이 주전자는 어머니가 오래 전에 홀란드에서 갖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아버지는 문을 열고는 잘 알고 있는 두 분을 맞았다. “손님 오셨어”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힐다와 어머니는 서둘러 그들을 영접했다.

식사를 들면서 힐다는 아버지와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재미있게 들

고 있었다. 그들은 짓고 있는 커틀랜드 신전이 곧 완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커틀랜드 성도들이 모두 협조한 덕분이지요” 킴블 형제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성도는 수도 적고” 영 형제님이 말씀하셨다. “가난하지만 신앙의 견지에서 보면 부유하지요. 형제들은 건축 노동을 하는가 하면 자매들은 형제들의 옷을 지어 주니까요”

킴블 형제님은 그의 접시 옆에 있는 컵을 집으면서 힐다의 어머니를 보고 “자매님들은 귀중한 접시까지도 기증하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아름다운 사기 주전자를 가리키면서 물으셨다.

“라슨 자매님, 이 주전자도 말입니까?”

“네, 영 형제님 필요하시다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손님들이 떠나신 후, 힐다는 어머니를 도와 접시를 씻고 찬장 선반에 다시 놓았다. 유리 문을 닫으시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더니 두 뺨을 타고 흘러 내렸다. 힐다는 왜 모든 사람들이 접시를 가지고 슬퍼하는지 영문을 몰랐다.

다음날 오후, 힐다는 아버지가 일찍 집에 돌아오셔서 깜짝 놀랐다. 아버지는 커틀랜드에서 캐비닛 만드는 일이 없는 한 늘 종일 신전에서 일하셨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셨다. “여보, 이제 그걸 사용해야겠어”

“힐다, 엄마 좀 도와 주련?” 엄마는 힐다를 데리고 찬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 가셨다. 찬장 결의 마루 위에는 큰 상자가 있었다.

“그릇을 상자에 넣어 싸야겠어”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신전을 짓는 데 사용할 거다” 힐다는 사기 접시와 값진 사기 주전자가 어떻게 신전을 짓

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상상할 수 없었다. 힐다는 그릇 상자를 달구지 손수레에 싣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신전을 짓는 곳으로 물고갔다.

힐다는 수레에서 내려 아버지를 따라 한 노동자가 뭔가를 쉬고 있는 큰 통이 있는 곳으로 다가 갔다.

힐다의 아버지는 시끄러운 소음이 울리는 곳에 대고 크게 외쳤다. “이제부터 신전 바깥 벽에 장식할 벽토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깨진 사기 그릇이 벽토를 굳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사기나 유리는 햇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모양도 좋지요”

곁에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거의 모든 말일성도 자매들이 아끼던 사기 그릇을 신전을 짓는 데 바쳤어요”

힐다는 어머니가 아름다운 드레스 멘제 사기 그릇을 상자에서 꺼내어 큰 통 옆에서 있는 사람에게 넘겨 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평평한 상자에 놓고 산산 조각을 내어 부수더니 통 안에 넣었다.

푸른색 사기 주전자를 깨뜨려 벽토 통 속에 넣어 버렸을 때 힐다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언짱게 생각마라”

어머니는 흐느끼는 힐다의 어깨 위

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수레를 타고 언덕을 내려 오면서 힐다는 빈 상자가 뒤에서 덜거덩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없이 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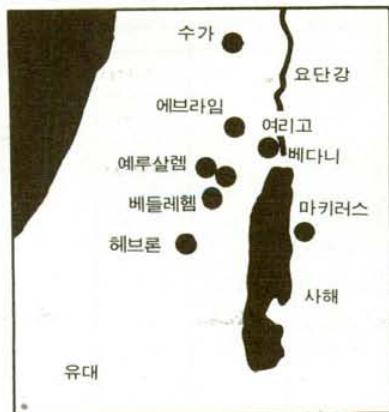
신전이 완성된 후, 어느 날 저녁, 힐다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아름다운 신전이 보이는 길로 나갔다. 태양이 저물어 가고 있었으며 힐다는 신전 벽을 볼 수 있었다. 햇빛에 비쳐 반짝거렸다.

“엄마!” 힐다는 소리를 질렀다. 힐다의 조그만 가슴은 갑자기 기쁨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엄마, 앞문 곁에 반짝이는 파란색 보여요? 할머니 주전자예요.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저렇게 반짝거리지 못할 거예요!”



# 사복음서의 일치점

**한** 사복음서의 각 복음서에는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사와 내용과 통찰력이 담겨 있다. 이 사복음서를 하나로 합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에 관해 가장 완전하고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에서 제시된 참고 기사와 장소와 함께 구세주의 생애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나열해 보기로 하겠다. 사건이 있었던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으나 사건의 전후 관계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일반적인 장소가 구세주의 생애를 좀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 1 기 : 예수님의 지상 생활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요한의 기간

(주일 학교 제 6-8 과)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세에서의 생활	예루살렘			1: 5-20	1: 1-19
스가라에게 전한 성수태 고지	유 대			1: 24-25	
은둔 생활을 하는 엘리사벳	나사렛			1: 26-38	
마리아에게 전한 성수태 고지	유 대			1: 39-56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	나사렛	1: 18-25			
요셉의 시련	유 대			1: 57-80	
요한의 탄생				2: 1-5	
가이사 마구스도가 영을 내림				2: 6-7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1: 1-17		3: 23-38	
그리스도의 계보				2: 8-20	
목 자	베들레헴			2: 21	
할 레	베들레헴			2: 22-38	
성전에서 바침	예루살렘			2: 39	
나사렛으로 돌아감	나사렛				
동방 박사의 방문	베들레헴	2: 1-12			
	또는 예루살렘				
애굽으로 피신함	애 굽	2: 13-15			
아기의 살해	베들레헴	2: 16-18			
애굽에서 돌아옴	나사렛	2: 19-25		2: 40	
성전에서의 예수님	예루살렘			2: 41-50	
나사렛에 거주함	나사렛			2: 51-52	

## 제 2 기 : 요한의 성역 기간으로부터 예수님의 성역 기간의 첫번째 유월절까지

(주일 학교 제 9-13 과)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침례 요한의					
초기 성역					
성역을 시작함					
요한에 대한 소개와 그의 메시지	유 대			3: 1-2	
요한이 설교함	유 대	3: 1-6	1: 1-6	3: 3-6	
그리스도의 오심을		3: 7-12		3: 7-14	
알림		3: 11-12	1: 7-8	3: 15-18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함	베다바라	3: 13-17	1: 9-11	3: 21-23	
시 절	유 대	4: 1-11	1: 12-13	4: 1-13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베다바라				1: 19-28
의심					1: 29-34
요한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					1: 35-42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남					1: 43-51
발릴과 나다나엘	가 나				2: 1-11
첫번째 이적-가나의 혼인 잔치	가버나움				2: 12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감					

## 제 3 기 : 초기 유대 지방의 성역 기간 첫번째 유월절부터 갈릴리로 돌아갈때까지

(주일 학교 제 14-15 과)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첫번째 유월절 - 첫번째로	예루살렘				2: 13-25
성전을 깨끗이 치움					
나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함	예루살렘				8: 1-21
유대로 돌아감	유 대				3: 22
요한이 제자에게	유 대				3: 23-36
간증함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시대 분류와 종합 연구는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의 '주님과 복음서, (솔 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7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저서를 참조하여 금년도(1976-77년도) 복음 교리반 공과를 배열하였다. 이 과정의 단원 독서 과정은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애 중가



장 중요한 기간에 대한 참조 성구를 모두 모은 것이다. (본 성도의 벗에 나와 있는 것은 과정의 독서 과제이다.) 이외에도 사복음서—복음 교리반 교사 보조 교재, 1976-77년도 vii, 1, 3, 15, 23, 37, 43, 65, 73, 83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구세주의 지상 생활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클라크 부대관장의 저서에서 설명된 사건의 배열 방법을 인용하기로 한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이 사건 배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사복음서의 일치점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갈릴리로 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감	마키라스 유대 수가 갈릴리	14: 3-5 4: 12	6: 17-20 1: 14	3: 19-20 4: 14	4: 1-3 4: 4-42 4: 43-44
--	-------------------------	------------------	-------------------	-------------------	-------------------------------

제 4기 :  
갈릴리 지방의 성역 기간  
가. 갈릴리로 돌아온 이후부터  
십이사도를 택할 때까지

(주일학교 제16, 17과)

주 : 여기에서 말하는 “갈릴리”란 사마리아 북부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서쪽으로는 갈릴리해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갈릴리에서 전도함		갈릴리	4: 17	1: 14-15	4: 14-15	4: 45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침		가나			4: 16-30	4: 46-54
나사렛에서 백적당함		나사렛			4: 31-32	
가버나움에서 전도함		가버나움	4: 13-16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름		갈릴리 가버나움	4: 18-22	1: 16-20 1: 21-28	5: 1-11 4: 31-37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음		가버나움	8: 14-17	1: 29-34	4: 38-41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침 :		갈릴리	4: 23-25	1: 35-39	4: 42-44	
여러가지 이적		갈릴리	8: 1-4	1: 40-45	5: 12-16	
예수님이 순례 전도함		가버나움	9: 2-8	2: 1-12	5: 17-26	
문중병자를 고침		갈릴리	9: 9-13	2: 13-17	5: 27-32	
중풍병자를 고침		갈릴리	9: 14-17	2: 18-22	5: 33-39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함		갈릴리	12: 1-8	2: 23-28	6: 1-5	5: 1-47
요한의 제자가 금식에 관하여 질문함		갈릴리	12: 9-14	3: 1-6	6: 6-11	
(갈릴리 해변 근처)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	12: 15-21	3: 7-12	6: 12-16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름		갈릴리	10: 1-4	3: 13-21		
손 마른 자를 고침		갈릴리				
갈릴리 바다로 떠남		갈릴리				
열 두 사도를 성임함		갈릴리				

1. 제 18-20과가 “나”부 제 21-23과 대신에 “가”부 갈릴리 지방 성역 기간에 잘못 들어 가 있다. (사복음서—복음 교리반 교사 보조 교재 1976-77년도, 43페이지 참조)

제 4기 :  
갈릴리 지방의 성역 기간(계속)  
나. 산상수훈부터 갈릴리 북부 지방 여행까지  
(주일학교 제18, 23과)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산상수훈 <sup>1)</sup>			5장-7장		6: 17-49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침		가버나움	8: 5-13		7: 1-10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불 살림		나인			7: 11-17	
요한이 사자를 보내어 예수께 물을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갈릴리	11: 2-30		7: 18-35	
향유를 부음		갈릴리			7: 36-50	
갈릴리 여행		갈릴리			8: 1-3	
눈이 멀고 병어린 사람을 고침		가버나움	12: 22-23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 냈다는 비난을 반박함		가버나움	12: 24-37	3: 22-30		
예수님이 표적에 관하여 말씀함		가버나움	12: 38-45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음		가버나움	12: 46-50	3: 31-35	8: 19-21	

무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심 (갈릴리 해변)	갈릴리	13: 1-3	4: 1-2	8: 4	
씨부리는 자에 관한 비유	갈릴리	13: 3-23	4: 3-25	8: 5-18	
씨앗이 자라는 비유	갈릴리		4: 26-29		
가리지에 관한 비유	갈릴리	13: 24-30			
거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	갈릴리	13: 31-35	4: 30-34		
가리지에 관한 비유 설명	갈릴리	13: 36-43			
기타의 비유		13: 44-53			
폭풍우를 직잡게 함 (갈릴리 바다)	갈릴리	8: 8-27	4: 35-41	8: 22-25	
가다라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음	가다라	8: 28-34	5: 1-20	8: 26-39	
가버나움으로 돌아옴	가버나움	9: 1	5: 21	8: 40	
아이로의 딸을 살림	가버나움	9: 18-29	5: 22-24	8: 41-42	
		23-26	35-43	49-56	
할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음	가버나움	9: 20-22	5: 25-34	8: 43-48	
소경 두 명이 고침을 받음	가버나움	9: 27-31			
귀신들려 병어리가 된 자를 고침	가버나움	9: 32-34			
나사렛에서 두번째로 배척당함	나사렛	13: 54-58	6: 1-6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님	갈릴리	9: 35-38	6: 6		
십이사도를 내 보냄 - 땅과 천지기에 관한 비유	갈릴리		6: 7-13	9: 1-6	
예수님이 여행을 계속함 *	갈릴리	10: 1, 55-42			
해롯이 요한의 죽을 빙	갈릴리		6: 21-29		
해롯이 예수님을 요한으로 여김	마키리소	11: 1	6: 14-16	9: 7-9	
십이사도가 선교 사임을 보고함	갈릴리	14: 6-12	6: 30	9: 10	
벧새대에서의 성역	갈릴리	14: 1-2	6: 31-32	9: 10-11	
5천명을 먹임 (벧새대 부근)	갈릴리	14: 13	6: 33-44	9: 12-17	6: 1-14
예수님이 그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막음	갈릴리	14: 14-21	6: 45-46	6: 15	
		14: 22-23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심	갈릴리	14: 24-33	6: 47-52	6: 16-21	
생명의 떡에 관하여 무리에게 말씀 함	가버나움			6: 22-71	
게네사렛인들의 빵을 고침	게네사렛	14: 34-36	6: 53-56		
정결에 관한 설교	가버나움	15: 1-20	7: 1-23		

로 여겨지는 연대순으로 사건을 배열하였다. 본 책에 나와 있는 사건의 배열이 반드시 구세주의 생애의 연대순으로 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고, 다만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연대순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사용한 순서와 다르게 연대순을 나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연대적인 순서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언행과 그의 교훈과 교리이다.”(주님과 복음서, vi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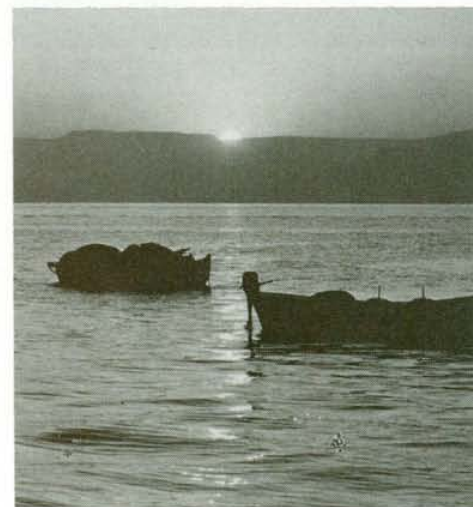
1. 탈매지 장로는 산상수훈이 십이사도의 부름 이후에 행하여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230페이지 참조)
2. 탈매지 장로의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침례 요한의 투옥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모든 이야기 사건의 연대를 무시하고 다루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252-61페이지 참조)

#### 제 4 기 : 갈릴리 지방의 성역 기간 (계속)

다. 갈릴리 북부 지방으로 다시 돌아온 후부터 갈릴리 지방의 성역이 끝날때까지 (주일 학교 제24, 25과)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북부 지방으로 여행함			15: 21	7: 24		7: 1
회람 여인의 딸을 고침		두로, 시돈 지방	15: 22-28	7: 25-30		
갈릴리 바다로 돌아옴		갈릴리 바다	15: 29	7: 31		
귀머거리가 병고침을 받음		데가볼리		7: 32-37		
4천명을 먹임		데가볼리	15: 29-38	8: 1-9		
예수님이 막달라로 가심 (갈릴리 바다)		막달라	15: 39	8: 10		
표적에 관한 설교		가버나움	16: 1-2	8: 11-21		
장님을 고치심		벧새대		8: 22-26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간증		가이사라-빌립보 지방	16: 13-20	8: 27-30	9: 18-22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침		가이사라-빌립보 지방	16: 21-28	9: 31, 38, 9: 1	9: 23-27	
변형-신권의 열쇠를 부여함		변형의 산 <sup>1</sup>	17: 1-13	9: 2-13	9: 28-36	
귀신들린 자를 고침			17: 14-21	9: 14-29	9: 37-43	
갈릴리 지방을 다시 두루 다님		갈릴리	17: 22-23	9: 30-32	9: 43-45	
예수님에게 세례에 대하여 질문함		가버나움	17: 24-27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름



운유함과 겹손함에 관한 설교 용서와 인봉의 권세에 관한 설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하는 자의 책임 희생에 관한 설교 2 찰십인을 내 보냄 유대로 갈 것을 권고받음 - 유대인들로부터 배적당함 예루살렘으로 떠남	가버나움 가버나움 가버나움 가버나움 가버나움 갈릴리	18: 1- 14 18: 15- 35	9: 33- 37 9: 38- 42	9: 46- 48 9: 49- 50 9: 57- 62 10: 1- 16 9: 51- 56	7: 2- 9 7: 10
--	---	-------------------------	------------------------	---	------------------

1. 헤르몬산(수 12 : 5) 또는 다불산(삿 4 : 14)
2. 예수 그리스도, 306페이지, 각주 d

**제 5 기 :**  
**유대 지방 후기 성역**

(주일 학교 제 26, 27, 28과)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장막절에 설교함 간음중에 잡힌 여인 세상의 빛과 하나가 됨에 관한 설교 유대인에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설교함 찰십인이 돌아옴 : 두 가지 큰 계명-선한 시마리아인에 관한 비유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한 예수님 기도예 관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병어리 귀신을 쫓음 정결에 관한 설교 무리에게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가르친 예수님 갈릴리인의 살해, 무함과 나무에 관한 비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친 예수님 :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 수전절-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함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유 대 유 대 베다니 유 대 유 대 유 대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7: 11- 53 8: 1- 11 8: 12- 30 8: 31- 59 10: 17- 24 10: 25- 37 10: 38- 42 11: 1- 13 11: 14- 36 11: 37- 54 12: 1- 59 13: 1- 9 9: 1- 41 10: 1- 21 10: 22- 39	

1. 탈매지 장로는 이것을 후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427페이지)
2. 탈매지 장로는 이 사건을 초기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412페이지, 각주)

**제 6 기 :**  
**베리아 지방 성역 기간**

(주일 학교 제 29, 30, 31과)

주 : 예수님은 수전절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모면한 후에 베리아 지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곳에서 약 3개월간 성역을 베풀었으며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다. 이곳은 침례 요한이 제일 처음으로 성역을 베풀던 곳이다.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 감 안식일에 여인의 병을 고침 <sup>1</sup> 거자씨에 관한 비유 <sup>1</sup>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시작함 <sup>1</sup> 해렛 안디바에 관한 경고 <sup>1</sup> 나사르가 병에 걸린 소식 안식일에 고장병에 걸린 남자를 고침 <sup>1</sup> 희생에 관한 설교 <sup>1</sup> 비유 : <sup>1</sup> 잃은 양 잃은 동전 돌아온 탕자 숨지 않은 정치기 시기에 관한 설교 <sup>1</sup>	베리아 베리아 베리아 베리아 베리아 베리아 베리아 베리아 베리아				10: 39- 42 13: 10- 17 13: 18- 21 13: 22- 30 13: 31- 35 11: 1- 16 14: 1- 24 14: 25- 35 15: 1- 2 15: 3- 7 15: 8- 10 15: 11- 32 16: 1- 13 16: 14- 18	

가나-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





<p>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저주받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함 과부의 동전 한 닢 헬라인이 예수님을 좇음, 하늘로부터의 음성2 그리스도가 그의 사명의 목적을 선포하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 말 처녀에 관한 비유 달란트에 관한 비유 최후의 심판-망과 열소 배신에 대한 예언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 시몬의 저택 : 마리아가 예수님의 품에 활유를 부음1 유다가 배반함 (34 페이지 각주 참조)</p>		<p>23: 1-36 23: 37-39</p> <p>24: 1-51 25: 1-13 25: 14-30 25: 31-46 26: 1-2 26: 3-5 29: 6-13</p> <p>26: 14-16</p>	<p>12: 38-40 12: 41-44</p> <p>13: 1-37</p> <p>14: 1-2 14: 3-9 14: 10-11</p>	<p>20: 45-47 21: 1-4</p> <p>21: 5-36 22: 1-2 22: 3-6</p>	<p>12: 20-36 12: 37-50</p>
<p><b>네째 날 (수요일)</b> 베다니</p>					
<p><b>다섯째 날 (목요일)</b>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함 자리에 앉으심 떡을 축복함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1 유월절 만찬-성찬2 배반자가 있을 것을 암시함 유다가 방울 떠남3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예언함 베드로가 자신의 중성심을 알함4 보혜사에 관한 설교4 찬송을 부름, 감람산으로 올라 감4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르침4 다가 온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다시 설명함4 위대한 기도4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함, 제자들이 중성심을 알함4 동산에서 그리스도가 기도함 배 반 제 포</p>		<p>26: 17-19 26: 20 26: 26-29 26: 21-25 26: 30 26: 31-35 26: 36-46 26: 47-50 26: 51-56</p>	<p>14: 12-16 14: 17 14: 22-25 14: 18-21 14: 26 14: 27-31 14: 32-42 14: 43-45 14: 46-52</p>	<p>22: 7-13 22: 14 24: 30 22: 15-20 22: 21-23 22: 31-38 22: 39 22: 40-46 22: 47-48 22: 49-53</p>	<p>13: 1-20 13: 21-26 13: 27-30 13: 31-33 13: 36-38 14: 1-31 15: 1-27 16: 1-33 17: 1-26 18: 1-2 18: 3-9 18: 10-12</p>
<p><b>여섯째 날 (금요일)</b> 안나스 앞으로 감 가야바에게 보내짐-심문, 학대받음 베드로의 부인 유대인 앞에서 공개 재판  가롯 유다의 죽음 빌라도 앞에 섬 헤롯 앞에 섬 다시 빌라도 앞에 섬 (바라바가 놓임)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감-십자가 상에서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 말한 첫 말씀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함 십자가 위에서 또 말씀함 아동이 땅을 뒤엎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함 예수님이 사망함 백부장의 간증</p>		<p>26: 57-75 27: 1-2 27: 3-10 27: 11-14 27: 15-30 27: 31-34, 37-38 27: 35-36 27: 39-44 27: 45 27: 46-47 27: 48-50 27: 51-56</p>	<p>14: 53-72 15: 1 15: 2-5 15: 6-19 15: 20-23, 25-28 15: 24 15: 29-32 15: 33 15: 34-35 15: 36-37 15: 38-41</p>	<p>22: 54-65 22: 66-71 23: 1 23: 2-5 23: 6-12 23: 13-25 23: 26-33, 38 23: 34 23: 34 23: 35-37 23: 39-43 23: 44-45</p> <p>18: 13-14, 19-23 18: 24-27, 15-18 18: 28-38 18: 39-40, 19: 1-16 19: 16-33 19: 23-24 19: 25-27 19: 28-30 23: 46 23: 45 47, 49</p>	<p>18: 13-14, 19-23 18: 24-27, 15-18 18: 28-38 18: 39-40, 19: 1-16 19: 16-33 19: 23-24 19: 25-27 19: 28-30</p>



